



쉐퍼가 본 기독교 세계관의 철학적 기초

김정훈

철학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다

제목부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쓸데없는 질문이나 한다고 편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거창하지 실제로 알고 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저 번식하는 것으로 그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의미를 두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데 바빠도 거기에 그냥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쉐퍼는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이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전제(presupposition)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사물을 보는 기준(reference point)이나 틀(frame)로서 세계관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과 사물을 볼 때 어떤 일정한 관점 혹은 기준점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전제에 따라 행동하고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 혹은 틀을 말합니다. 기독교 세계관(Christian worldview)하면 기독교의 진리에 입각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인데 여기에 철학적 기초(philosophical foundation)라는 말이 붙어 어렵게 들릴 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뭘지 배우기도 바쁘는데 철학적 기초는 또 뭐냐고 생각하실까봐 잠시 설명을 할까합니다. 사람들은 '철학'하면 뭔가 심오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뚱뚱그러 말하자면 철학은 근본적인 전제를 되묻는 작업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전제를 세심하게 살펴보거나 일관적인 전제를 갖지 않으려는데 있습니다. 바른 삶을 살려면 바른 세계관이 있어야 하고, 바른 세계관을 세우려면 바른 전제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바른 전제를 가지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바른 철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이렇게 전제를 되묻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좋은 철학은 나쁜 철학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세계관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에도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철학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쉐퍼가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철학적 기초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진리로 세상을 볼 때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학에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음을 중심으로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이렇게 세가지 영역에서 다루어 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프란시스 쉐퍼전집 1권 기독교 철학 및 문화관- 거기계시는 하나님, 이성에서의 도피, 거기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바랍니다. 여기서의 거기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을 따랐습니다.)

형이상학적 기초

형이상학(metaphysics)은 쉽게 말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존재란 무엇인가' 등의 물음에 답을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쉐퍼는 '왜 아무 것도 없지 않고 뭔가가 항상 있어야 하는가?'라는 사르트르(Sartre)의 물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형이상학의 여러 물음 중에 가장 기본적인 물음입니다. 도대체 세상과 내가 있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주의 기원과 인격의 근원을 묻는 이 물음에 쉐퍼는 세가지 답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서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모든 것이 비인격적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흔히 과학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로 제시되지만 이 주장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인격적인 우연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이것을 생각하는 인간의 인격은 비인격적 근원으로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비인격적 근원이 '참'이라면 우리가 느끼는 사랑, 정체성, 의사소통 등의 인격적인 열망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쉐퍼는 말합니다. 또한 인격적 근원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인격적 소망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 인간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을 해소할 방법은 '인격적 의미'를 찾아 신비주의로 비약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덧붙여 각 개인인 각각 다르다는 실제적인 차이를 인정하려면 한 사람 한사람이 각각 실재적이어야 하는데 비인격적 우주는 각각의 개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통일성과 다양성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자체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연적인 것이 우주의 이러한 고도의 복잡성과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는지 비인격적 기원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가능한 대답은 인격적인 근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의 두가지 난점을 충분히 해결합니다.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인간의 인격성으로 자기 자신에다 둘 수 없지만 무한하며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면 충분히 인격의 근원이 될 만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인격적 존재가 우주의 배후에 있다면 우주의 복잡성과 질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의 정의에 따라 세 번째 대답은 다시 몇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첫째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유한하면서 인격적인 신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신이 나와도 무한하지 않다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인격적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존재이어야만 합니다. 쉐퍼는 이 부분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이야말로 이러한 형이상학적 필요성에 맞는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쉐퍼는 기독교는 최선의 답변이 아니라 유일한 답변이라고까지 합니다. 존재의 문제, 즉 왜 세계가 지금과 같이 정교하고 질서있는 우주를 구성하며 어떻게 인간과 같은 인격체가 존재하게 되었는가하는 문제는 무한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상정해야 풀리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평가와 과제

쉐퍼의 형이상학적 논증에는 인격(person)이나 무한성(infinity), 절대(absoluteness) 등을 개념정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에 비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전형적인 목적론적 논증(teleological

argument- 만물의 형태와 기능을 보았을 때 목적이 있도록 만들어 졌으며 이 목적을 부여한 것은 만물 밖에 있는 초월자, 즉 하나님이다라는 식으로 신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의 형태를 갖추면서도 기독교적 대답이 유일하다(the only answer)고 주장하는 것 또한 논증의 한계를 벗어났다라는 비판도 맞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인격적이며 무한한 신의 존재가 형이상학적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체계다라고만 하면 됐을텐데 기독교의 무한하며 인격적인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변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읽는 사람이 명목적 필연성(apparent necessity)을 절대적 필연성(absolute necessity)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에도 불구하고 쉐퍼의 형이상학적 논증에는 여전히 귀중한 통찰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한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야말로 쉐퍼의 사상의 핵심 개념들 중에 하나인데 이 사상은 서구에서 아직도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중에는 리처드 스윈번(Richard Swinburne)이 쉐퍼의 인격성 논증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분석철학적으로 변증하며 영미 철학, 신학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또한 목적론적 논증의 유효성은 현재 윌리엄 템스키(William Demski) 등 미국의 기독교 과학자, 신학자들이 벌이는 '지적설계이론 Intelligent Design'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쉐퍼의 핵심 주장이 '지적설계이론'의 동기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지적설계자'를 상정하고 자연계의 복잡성과 질서를 탐구하는 것이 과학이 원래 해왔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 언급한 기독교 철학자, 과학자들이 쉐퍼를 직접 인용하거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5여년 전에 나온 쉐퍼의 저작이 지금의 이러한 모든 학문적 결과의 물꼬를 트게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무한하며 인격적 하나님'의 개념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개념은 르네상스 이후 유럽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서양 철학자들은 무한성의 개념이 인격이라는 개념과 같이 갈 수 없는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즘 어떤 신학자들은 무한성이라는 개념이 헬라 철학의 수학적 개념일 뿐 기독교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개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찌됐건 서양에서는 무한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의 개념이 형이상학적으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철학 외에 다른 영역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격적이며 무한한 하나님' 개념은 여전히 설명타당성이 있는 철학적 전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쉽게 말해 '인격적이며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양적 전통에서 있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한'개념이나 '인격'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동양의 철학적 전통에 세상의 질서는 숙명론적이고 초월적인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이러한 자연적 질서의 한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다만 '초월적 인격자'는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 들여 지지만 세계나 인간의 근원을 설명하는 형이상학적 기초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쉽게 믿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초로 생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거나 다른 자연적 대상물처럼 이성적 도구로 마음대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의 기초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신앙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면 기독교는 쉐퍼가 말한 신비주의적 도약을 강조하게 될 뿐 현실세계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동양철학에서 제시하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설명과 기독교의 인격적 하나님이 어디가 어떻게 맞지 않는지, 왜 초월적이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선포하는 기독교가 진리인지 합리적으로 말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형이상학의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윤리에 있어서 인간과 인격의 정의, 여성운동과 인간의 존엄성, 과학적 탐구에 있어서 질서와 아름다움의 의미, 뇌과학에 있어서 몸과 영혼의 관계, 개인의 자유의지와 사회의 관계, 교육의 목표 등은 기독교적으로 탄탄한 형이상학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무한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히려 했다는 점이 쉼퍼의 공헌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유산을 우리의 토양과 상황에 맞게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인식론적 기초

인식론(epistemology)이라는 것은 '앎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지식의 본질 무엇이며 사물과 어떻게 대응하는가 등 인간의 이성적 활동에 대한 탐구입니다. 쉼퍼는 서구 철학이 인식론적 보편자(universals)를 확보하기 위한 탐구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개별적인 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보편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 눈 앞에 서 있는 실제 나무(개별자-individual) 내 생각 속에 '나무'라는 지식(보편자)을 갖게 하는지 등의 문제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을 형성하는 방식 즉 인식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쉼퍼는 플라톤(Plato)에서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 철학자들의 결론은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시작해 이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코 제대로 된 인식론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못박습니다. 결국 기계적인 실증주의나(logical positivism) 비합리적 신비주의(mysticism)라는 결론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기독교는 앎의 문제에 있어서 합리적(rational)이며 인격적(personal)인 해답을 제시한다고 쉼퍼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외부세계의 존재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안에 두어 살게 하시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적합하도록 인간의 정신범주(mental category)가 상관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덧붙여 쉼퍼는 명제적 진리(propositional truth)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우주나 인간에 관하여 언어로 계시된 것은 인간과 우주에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언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지만 인격적 하나님의 명제적 계시(propositional revelation)는 인간과 자연에 관한 충분한 진리를 전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식론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 사이에 상관관계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평가와 과제

쉼퍼의 인식론은 형이상학적 논증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일반화와 논리의 비약이라는 논평을 받았습니다.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논리가 세련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쉼퍼는 현대 철학의 인식론적 논쟁에서 유효한 통찰력을 제시합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실제에 맞다면 기독교가 인식론의 기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실제적인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쉼퍼는 명제적 진리로서의 계시를 말했습니다. 이 말이 인식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려 했습니다. 이성을 인식론의 보증

자(epistemological guarantor)로 두려는 시도는 이미 실패가 입증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성 자신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이데거(Heidegger)같은 철학자들처럼 명제적 진리의 가능성마저 없애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월적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에 그 기초를 두려했습니다.

쉐퍼는 정초주의(foundationalism)를 바탕으로 기독교 실재론(realism)과 대응이론(correspondence theory)적 인식론을 펼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합리주의의 편협한 정초주의(narrow foundationalism) 대신에 쉐퍼는 하나님을 인식의 기초로 요구했습니다. 당시에 무모해 보였던 이러한 철학적 대답성은 후에 알빈 플란팅가(Alvin Plantinga),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 윌리엄 알스턴(William Alston)와 같은 기독교 철학자들에게 의해 개혁주의적 인식론(Reformed epistemology)에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론의 담보자로 요구하는 기독교 실재주의적 대응론은 아직도 여러 기독교 철학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남았습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진리관을 예로 들어 봅시다. 포스트모더니즘을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그 특징을 어렵잡아 볼 수는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언어나 이론이 실재와 맞아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자의적인 관계라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실재를 구성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언어이지 실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며 절대적 진리를 상정하지 않아야 하며, 저자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아울러 설명하는 메타내러티브(meta narrative)는 불순하다고 봐야 한다고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말합니다.

절대적 상대주의(absolute relativism)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객관적 진리의 가능성이 없게 마련입니다. 진리라고 해봐야 개인적 혹은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인식되는 한도 내에서 통하는 진리가 전부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 '만물에 존재하는 방식에 맞는' 진리를 찾는 것은 폭력적이고 제국주의적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상대주의가 절대화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인정하는 것과 모순된 진리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은 실재를 가지고 종교마다 서로 모순된 입장을 말하는데 두 개가 동시에 진리일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상대주의적 진리관에 맞서 하나님을 인식론의 담보자로 요구하며 명제적 진리의 가능성을 말하는 인식론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쉐퍼가 전개했던 인식론보다는 그가 던지는 인식론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는 직관적 인식을 강조하는 동양사상의 분위기에서 자라왔습니다. 분석적인 인식론보다는 직관적인 중용의 도를 더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인식론의 토양부터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자를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설명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히려 실천적 이성으로써 선행을 강조하는 우리의 직관적 전통이 추상적 객체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서양의 분석적 인식론 보다 성경적 인식에 더 근접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리학적 기초

도덕적 물음(moral question)은 어떤 변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비기독교인들에 말하기에 가장 적합

한 구실을 제공합니다. 형이상학이나 인식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이상 중요한 개념으로 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윤리학(ethics)에 있어서 여전히 신이나 초월자의 존재가 요구되는 형편입니다. 칸트(Kant)이후로 서양철학은 여전히 윤리적 절대선(absolute goodness)의 개념을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시켜 생각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쉐퍼는 인간의 현실로부터 도덕적 논증을 시작합니다. 모든 윤리적 문제는 인간이 고귀하면서 동시에 잔인한 존재라는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격적이지만 유한해서 인간 스스로 충분한 통합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기초를 인간을 초월한 것에 두어야 합니다. 쉐퍼는 여기에 대한 몇가지 대안을 생각해봅니다.

첫째는 비인격적 기원에 근거를 해서 인간의 잔인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악해진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실제적인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절대'적인 선의 개념을 창출해 내거나 혹은 다수의 견해에 의해서 도덕적인 법을 정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둘째는 기독교처럼 인격적인 기원을 염두에 두고 인간의 고귀함과 잔인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으로 창조하셨고 인격으로 창조된 사람이 스스로 악을 선택함으로써 잔인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일 이러한 잔인함이 하나님에게서 비롯했다면 인간에게는 궁극적으로 도덕적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여 그것이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 되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인간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과 인간 외에 초월적인 방법만이 인간의 도덕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강점은 인간이 왜 잔인성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며 인간의 잔인성은 천성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인간의 상태가 정상적인 것에서 이탈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다시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대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돌리는 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도덕적 악이 하나님과 직접 연관되지 않고 인간의 비정상적 상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모든 악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평가와 과제

쉐퍼는 윤리학을 변증적(apologetic way)으로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악에 관한 보수적 기독교의 전제를 보편적 윤리학으로 정당화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보수적 공화당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데 역이용 당했다고 비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쉐퍼의 윤리적 관점을 오해한데서 비롯했다고 보여집니다. 쉐퍼의 관심은 항상 '생각은 결과를 낳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당시에 유행하던 모든 풍속의 배후를 점검해 보고 실제적인 대안을 주려는 데 있었습니다. 70년대 이후로 쉐퍼는 낙태를 비롯하여 생명윤리, 생태학, 인종문제, 경제, 시민불복종 운동, 전쟁 등 거의 전방위적으로 윤리적 쟁점들을 다루었고 실천에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낙태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할 악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뒤에서 사람들을 조정하는 세계관, 혹은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행위자체도 중요하지만 왜 반대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했고 그것은 결국 태아의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대접받을 권리 등을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관의 변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낙태, 공해, 전쟁 등의

악을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쉐퍼는 우리에게 자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윤리적인 삶이 가능한지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쉐퍼가 살았던 시대와 다른 시대에 살며 다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쉐퍼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가 꿰뚫어 보았던 윤리적 안목은 분명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좋은 점은 이러한 윤리적 실천이 공개적으로 활발해 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리적 실천을 하지 않고 악의 배후에 조정하는 사상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진리는 좋은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로만 남고 말 것입니다.

맺는 말

쉐퍼는 나름대로 기독교 세계관인 철학적으로도 우수한 관점임을 논증했고 실천했습니다. 기독교 진리가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등의 철학적 성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관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갈파했습니다. 성경적 진리가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실제 세계의 형태와 복잡성에 들어맞으며 인간의 인격성을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또한 인간을 창조한 인격적 하나님이 세계와 인간에 관한 지식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론적으로 확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세계의 현실, 즉 선과 악이 공존하는 모순적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기독교의 메시지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비기독교적 세계관은 전제와 결론이 논리적으로 정합적일수 없다고 쉐퍼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으로 무신론에 이르거나, 인식론적으로 비합리주의에 이르거나, 도덕적으로 무윤리성에 기초한 담론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 쉐퍼의 진단이었습니다.

쉐퍼는 모든 사람이 일정한 관점과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인데 비기독교적인 전제를 가지면 두가지 문제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중 하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록 비기독교적 세계관이 그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비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실할 수록 현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쉐퍼는 기독교의 '무한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사변적 논쟁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기독교 영성의 통합점으로 삼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쉐퍼가 말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철학적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인격성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며, 자연과 우주의 질서와 조화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목표도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즉 인격성의 회복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격성에는 무한한 증거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우주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인격적이며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쉐퍼의 영성을 전인적이며 우주적 영성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쉐퍼가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철학적 기초는 이러한 초월적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진리는 심리적, 도덕적, 공동체적으로 완벽한 치유를 당장 약속하는 이상주의나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쉐퍼의 강조점은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체험과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을 가리킵니다. 쉼퍼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격성이라는 개념이 골방에서 이뤄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 것처럼 축소하는데 있습니다. 인격성은 인간과 우주 심지어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개인적인 체험의 영역에만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신학과 영적인 삶의 통합점이 철학적으로 제대로 제시 되지 않는다면 온갖 신비주의적 체험, 세속주의 등이 우리 삶의 통합 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퍼가 철학적으로 '무한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기독교 세계관의 철학적 통합점으로 삼은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도전으로 남습니다.